



이화소식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2005년 1월 31일 제 68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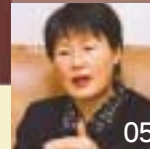
10



04



08



05



05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시편 116:1~2)

법학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출범 준비 시동 걸었다

본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가시화될 이화의 전문대학원들은 지난해 설립추진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는 로스쿨, 2007년 출범하는 의학전문대학원, 2006년에 시작되는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등이다.

‘선(先) 기초, 후(後) 전공’을 기본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학, 법학, 경영학 등을 중심으로 보편화된 교육 시스템.

본교는 국내에서 이제 막 태동을 시작한 전문대학원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에 따라 대학 발전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일러스트 · 이윤희

로스쿨 : “2005년을 설립 원년으로 삼고, 총력 집중”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본교는 지난해 11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장희 대외부총장)를 발족, 로스쿨 설립 준비에 뛰어 들었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가 밝힌 로스쿨 정원은 1200명선. 앞으로 다소 늘어난다 해도 전국 97개 법과대학(또는 법학과)중 6~10여개 대학만이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법과대학(학장 양명조 교수)은 2000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법학분야 평가 ‘최우수’,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수 6위라는 유리한 입지를 바탕으로, 로스쿨 체제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5면으로 기사 이어짐)



신인령 총장 신년 메시지

120년 향한 또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한해로

사랑하는 이화인 여러분, 존경하는 교직원과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이화의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화의 친구'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된 을유년 내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해, 이화는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수준의 여성지도자 양성이라는 이화의 21세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화의 지적 자산을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활용코자 산학협력단을 국내 대학으로는 세 번째로 출범시켰고, 글로벌 이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칼라피노 교수를 비롯한 세계 석학 아홉 분을 이화국제화 자문단으로 위촉했습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여성경영인력 양성소가 될 이화신세계관과 21세기 세계인재들의 보금자리로 꾸며지는 국제기숙사, 이화 · 삼성 글로벌타워의 신축도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고수준의 이화어린이집도 나란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본연의 기능인 강의, 연구 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수당 책임강의의 시수를 줄인 결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나타내는 강의 평가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가시적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이고, 연구조교제도 강화를 통해 대학원생 장학금을 확대한 것 또한 자랑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도 이화는 무척 분주한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한해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이화캠퍼스센터(ECC)의 신축이 올 5월 예정되어 있으며 근대 여성사의 기념비적 존재인

옛 이화학당 한옥교사의 복원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를 맡은 ECC는 기본 설계를 마치고 현대와 전통이 절묘하게 조화된 전체적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21세기를 향한 이화의 꿈과 희망이 담긴 거대한 상징물이라 할

ECC 건립에 이화인, 이화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또한 이화가 전문대학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가는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에 걸맞는 교육 환경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되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준비작업도 착실히 진행중입니다. 사회복지학과도 사회복지대학원으로서 이 분야 인재 양성의 차원을 한단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창립 119주년을 맞는 이화가 지금까지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발전계획 보장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근대 여성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이를 자랑스런 거목으로 키워온 이화가 120주년을 앞두고 또다른 발전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그리는 일입니다. 이의 실천에는 이화인 모두의 비전 공유와 가슴으로부터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신인령

총장동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신인령 총장이 1월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사개추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건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인 사개추위에는 신인령 총장외에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채이식 고려대 법대 학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8명이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인령 총장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10주기를 맞아 '윤이상 평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1월 18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현판제막식. 맨 왼쪽이 신인령 총장.

2005학년도
장학제도 개편

“학비 걱정덜고 공부하세요”

가계곤란 학생 및 대학원생 연구 지원 대폭 강화

올해부터는 생활이 곤란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을 덜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학제도 혁신을 위한 특별연구팀(위원장 송덕수 학생처장)은 기존의 장학제도를 개편, 이를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장학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가계곤란 장학금액이 인상되고 지급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된 것. 가계곤란 장학금이었던 ‘이화소망 장학금’과 ‘이화 장학금’을 ‘이화복지 장학금’으로 통합하여, 기존의 소액 장학금(60만원·100만원)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전액·등록금의 2/3, 1/3 등 큰 규모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가계곤란 학생을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과 가계곤란 장학금의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극빈자에 준하는 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2.00(4.30만점) 이상’이라는 성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 방법 또한 달라졌다. 기존의 ‘최우수 장학금’과 ‘우수 장학금’은 일정 기준의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대상이었으나 개편된 성적우수 장학금은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

새로 적용되는 ‘최우수 장학금’은 대학별 석차 2% 이내, ‘우수 1 장학금’은 석차 6% 이내의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성적우수 장학금 기부제’를 도입, 기부금을 가계곤란 학생들을 위한 ‘이화복지 장학금’으로 책정하며, 기부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한다. 학생 활동 장학금 제도는 ‘이화 진 장학금’과 ‘학생복지 장학금’이 ‘이화 봉사 진·선·미 장학금’으로 통합되어 적용된다.

대학원의 경우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연구조교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우수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대학원의 최우수·신입생우수 장학금과 장려장학금(우수논문, 이화복지1장학금), R.A.(Research Assistant)장학금은 ‘연구조교 장학금’으로 통합된다.

ECC 소식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런 어울림에 역점”

이화캠퍼스센터(ECC) 기본 설계 마무리



이화캠퍼스센터(ECC)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 되면서 이의 내용을 교내 주요 인사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사진)가 1월13일(목·오전10시) 국제교육원 LG컨벤션홀에서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 신인령 총장, 유장희 대외부총장, 윤순희 총동창회장, 처장단, 교무위원, 캠퍼스 위원회 및 공간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설명을 맡은 ECC 설계자 도미니크 페로는 “대학 캠퍼스를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창출하면서 주변의 건물, 지형, 도로 등 전체적인 이화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는데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골짜기를 이루는 ECC 주변을 나무 울타리로 감싸게 함으로써 ‘녹색 공간의 보호막’을 만들어 이화인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

대학원 별관, 경영관, 토마스 홀 등 주변 건물들과 ECC의 연계를 매우 독특한 발상으로 처리, 눈길을 모은 도미니크 페로의 기본 설계안은 실시 설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04 국가고객만족도
(NCSI) 조사
종합대학 부문 2위

- 전년 대비 고객만족도 향상률 13.1%

본교가 한국생산성본부(조선일보, 미시건대학 공동실시)가 주관하는 2004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 종합대학 교육서비스업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국내 주요 11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1월 사이에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본교가 69점을 맞아 서강대(71점)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

이번 조사에서 본교는 2003년의 61점에서 무려 8점이나 올라 전년 대비 고객만족도가 13.1% 수직 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전년 대비 고객만족도 향상률 우수 30대 기업’ 중 상승폭이 가장 큰 한국외국어대(18.9%), 대림산업(1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박통희 기획처장은 “국내·외 대학과의 네트워크 확대와 우수교원 유치 등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덕분”이라며 “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다기능 카드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만족도를 높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교는 지난 2002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 2003년에는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다시 2위로 한 계단 올라섬으로써 재학생 만족도 면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국가고객만족도(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SCI)는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를 계량화한 것으로 국가와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2005학년도 1학기 보직발령

교육의 수월성 앞당길 새 진용 갖추

보직명	성명	소속
국제대학원장	김은미	국제학
입학처부처장(관리)	이준엽	수학
총무처부처장(총무·인사)	차은영	경제학
재무처부처장(시설)	송승영	건축학
대외협력처부처장	조재경	산업디자인
멀티미디어교육원장	강명희	교육공학
국제교육원장	이재경	여성학
언어교육원장	윤영은	영어영문학
한국문화연구원장	김영미	사학
통일학연구원장	구대열	정치외교학
국제통상·협력연구소장	최병일	국제학
수리과학연구소장	고응일	수학
교육실습지도실장	정영란	과학교육
경영연구소장	박재홍	경영학

2005학년도 1학기 보직 인사가 발표되었다(2월1일자). 국제대학원장에 김은미 교수, 입학처(관리)부처장에 이준엽 교수, 총무처(총무·인사)부처장에 차은영 교수(1월1일자), 재무처(시설)부처장에 송승영 교수, 대외협력처부처장에 조재경 교수(2004년 12월1일자)가 임명되었다.

보직명	성명	소속
목동병원장	서현숙	의학
과학기술대학원교학부장 겸 공학부장	강호정	환경학
신학대학원교학부장	백은미	기독교학
성악학부장	신지화	성악
디자인학부장	오병권	시각정보디자인
공예학부장	유해자	도자예술
생활환경학부장	오상석	식품영양학
IGI원장	김명희	컴퓨터학



김은미 국제대학원장



이준엽 입학처부처장



차은영 총무처부처장



송승영 재무처부처장



조재경 대외협력처부처장

'이화-딜로이트 산학협력에 관한 협정식' 체결 회계 및 경영분야의 전문 여성 인재 양성에 뜻 모아



본교와 국내 3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하나안진회계법인이 회계 및 경영분야의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신인령 총장은 1월 18일(화·오전 10시 30분) 본관(101호)에서 딜로이트 하나안진회계법인(대표 양승우)과 산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국내 회계업계에선 최초의 산학협력인 이번 협정은 여성인력 활용 정책(Women's Initiatives)의 선두주자인 딜로이트가 우수 여성 인재의 산실인 본교에 산학협력 의사를 밝힘으로써 성사됐다.

향후 3년간 지속되는 이화-딜로이트 간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경영대학 석사 과정

에 연1회 딜로이트 강좌 개설 △경영대학(원) 재학생중 매년 3명의 딜로이트 장학생을 선발,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교수 연구비 지원 △딜로이트 프로젝트에 본교 교수진과 대학원생 아웃소싱을 통한 산학 협력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을 위해 딜로이트는 본교에 총 4억 6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인령 총장은 "여성인력 양성에 큰 의지를 갖고 실천해온 딜로이트가 이화와 손을 잡은 것은 서로에게 윈윈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화가족으로서 이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신인령 총장, 딜로이트 양승우 대표이사를 비롯 유장희 부총장, 서윤석 경영대학장, 성태제 교무처장, 박통희 기획처장, 박종훈 경영학부장, 김정권 경영대학원 교학부장, 딜로이트 이재술 대표, 김학수 대표, 양동표 대표, 신용인 대표, 한찬희 부대표가 참석했다.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

본교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과기부가 설립하는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National Institute for Supporting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의 운영을 맡게 됐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30일 관계부처 및 민간여성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개최, 본교를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위탁 설치·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초대 센터소장은 본교 전길자 교수(화학)가 선임됐다(인터뷰 7면).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은 지난해 10월 과기부의 위탁운영기관 공모 당시 본교를 비롯,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덕성여대, 동아대, 숙명여대, 인하대, 장영실기술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이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3차 최종위원회 평가 등 3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본교가 차세대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기구인 WISE 운영에 이어 현역 여성과기인들의 지원기구인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운영까지 맡게 된 것은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의지 △잘 갖추된 인프라 및 운영 경험 △초대 센터소장을 맡게 될 전길자 교수의 리더십과 경험 등이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층에 자리한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2월3일(오전11시·이화-삼성교육문화관 강당)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1면에서 기사 이어짐)

지난 1999년 법과대학 독립 건물을 확보하고 모의법정과 법학도서관, 법대 전용기숙사인 솜을관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안으로 제2법학관(연건평 1200평)과 로스쿨 전용기숙사(250명 수용)를 추가 신축한다. 교원은 현재 28명(전임 26명, 객원 2명)에서 향후 2년 내 14명의 전임교수가 더 충원된다.

양명조 법과대학장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로스쿨 유치 여부는 그 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거교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5개 분과 실무위원회(교수충원·네트워킹, 교과과정·교수방법, 시설확충(법학도서관), 졸업생경력개발, 자체평가)를 구성, 구체적인 유치여건 조성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 “차별화된 교육 내용으로 승부”

2007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되는 의과대학(학장 한운섭 교수)은 2005학년도부터 학부 신입생 선발을 중단하고,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체제 개편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과대학은 지난 2003년 2월, 사회의 다양성 증가, 의료기술의 고도화 및 의사의 자질 향상 요구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전환을 결정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윤건일 의무부총장)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해 왔다.

구체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교육목표 개정(2004. 10)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최첨단 의료 장비 확충 △198명의

전문 교수진 확보 및 충원 계획 △의학전문도서관 신설 △제2교육동(10층) 증축을 통한 최첨단 강의실 및 실습실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

한운섭 의과대학장은 “의학전문대학원은 시대적 추세이므로 남보다 먼저 시작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 의학교육 외에도 인성교육·여성리더십교육·세계화 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겠다”고 특성과 전략을 밝혔다.

의과대학은 이같은 전략 수립과 함께 지난해말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medicine.ewha.ac.kr/>)를 새롭게 단장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홍보 브로슈어와 의과대학 소식지를 새로 발간하는 등 홍보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 역시 2006년부터 학부 과정의 사회복지학 전공, 일반대학원의 사회복지학과, 특수대학원의 사회복지대학원을 모두 통합하여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시대로 돌입한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본교 사회복지학과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면서 임상과 정책으로 전공이 나뉘며, ‘아동/청소년/학교’, ‘여성/가족’, ‘노인/장애인’, ‘의료/정신보건’, ‘지역복지 및 기관관리’, ‘정책분석 및 개발’ 등 6개 세부분야로 나누어 고급 전문인 육성을 위한 심층 교육과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효>



한운섭 의과대학장과의 Q&A

의학전문대학원 ‘이것이 알고 싶다’



Q 의학전문대학원이 기존의 의대 대학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A 의학전문대학원은 일반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입니다. 의예과가 없어지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간 기초 및 임상의학 교육을 실시하여 의사 자격을 주게 됩니다.

여러 전공의 학부생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의 학사단계 의학교육으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과학자, 의법학자, 의경영학자 등) 양성이 가능해집니다.

Q 4년제 대학 졸업자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지?

A 의학전문대학원이 요구하는 선수과목(생물, 화학 등)을 이수하면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점수·학부 성적·심층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며, 자세한 입시요강은 2006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이화의학전문대학원만이 가진 강점이라면?

A 올해 처음 신입생을 선발한 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합격자의 63.4%가 여학생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수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증거지요. 실제로 의학분야는 섬세함과 꼼꼼함,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여성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전문 분야입니다. 이화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여성으로서 차별 없이 공정한 교육을 받아 리더십을 갖춘 여성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Q 이화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A 1학년은 주제별 통합교육, 2학년은 장기별 통합교육, 3학년은 핵심 임상실습, 4학년은 선택임상실습 교육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4년 동안 인문·사회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직 정신과 의사소통술, 리더십, 의료윤리, 조직 운영 능력 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Q 올해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았는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는 2007년까지 과도기 동안 기존의 학부와 대학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A 기존의 학부는 의과대학 체제 아래 선발한 재학생 위주로 학사가 운영되고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학석박사 과정 역시 지금 배출되고 있는 의학사들이 지원하는 한 계속 유지될 방침입니다.

Q 이화의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은?

A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화의학전문대학원은 특히 기독교 정신에 근거해 여의사를 양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거쳐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은 학생을 원합니다. 또한 의학의 속성상 생물학과 화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화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독서와 글쓰기 훈련을 많이 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Q 대학원생 선발 시 본교 학생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A 본교의 우수한 학부 학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 국가고시 및 언론사 공채에 대거 합격

고시계의 '이화' 열풍 뜨겁다

이화인들이 2004년도에도 사법·행정·외무 등 각종 고시와 변리사, 공인 회계사 등 전문직 시험, 언론사 공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변리사 시험에서는 수석 합격자도 나왔다.

지난해 12월23일 발표된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화인은 36명. 법학과가 31명으로 압도적이었지만 영어영문학과 2명, 행정학과 1명, 불어불문학과 1명, 사회생활학과 1명 등 타전공생이 5명이나 됐다. 본교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첫 합격자인 전효숙(법학 73년 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 이번 사법시험합격자를 포함해 처음으로 200명선을 넘어섰다(208명).

이화인들의 선전은 행정고시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9일 발표된 제48회 행정고등고시에는 총 19명의 이화인이 합격, 합격자의 10%를 차지했다. 직종별로 일반행정직 9명, 재경직 6명, 교육행정직 4명이며 재학생 합격자가 4명이나 됐다.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자 198명 중 여성 합격자는 76명으로 역대 최고 비율(38.4%)을 기록했으며, 여성 중 본교 출신은 25%가 넘었다. 지금까지 행시에 합격한 이화인은 총 102명이다.

3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제20회 입법고시에는 나아정 동문(사학 97년 졸)과 이유미 동문(경영 00년 졸)이 각각 재경직과 일반행정직에 합격했다. 19명이 합격한 지난 입법고시에서 여성은 4명으로 이중 절반을 본교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종인 변리사 시험에서 이화인이 전체 수석을 차지하는 경사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17일 특허청이 발표한 2004년 제41회 변리사 시험에는 7명의 이화인이 합격했으며 이중 김미정 동문(화학, 00년 졸)이 합격자 200명 중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김 동문은 "좋은 성적을 얻어서 기분이 좋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학공부는 물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교 출신 변리사는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64명이며, 2001년에도 장수영 동문(제약, 99년 졸)이 전체 수석을 기록한 바 있다. 특허 관련 업종에 진출한 동문 모임인 '이화특허인화'는 변리사들과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심사관들을 포함해 7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화인들의 공인회계사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해 9월8일 발표된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총 41명의 이화인이 합격함으로써 이화 출신 회계사는 모두 20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8일에는 박미조(정치외교, 98년 졸) 동문이 제38회 외무고등고시 외교통상직렬에 합격했다.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자 20명안에 든 박 동문은 "최근 외교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외교관이 되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본교 출신 외무고시 합격자는 1988년에 오영주(정치외교, 86년졸) 서기관 이래로, 2000년 1명, 2001년 3명, 2002년 2명, 2003년 1명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을 전후해 치러진 국내 주요 언론사 공채에도 21명의 이화인이 당당히 합격 소식을 전해왔다. 직종별로는 기자 11명, PD 4명, 아나운서 5명, 방송경영 1명이며 언론홍보영상학부 10명, 국문과 3명, 생명과학과 2명, 영문과 1명, 불문과 1명, 정외과 1명, 무용과 1명, 법학과 1명, 약학과 1명 등 전 공분야도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민>



1월10일(저녁 6시)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 36명을 축하하고 이화출신 법조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이대법조인회 정기 총회가 경영관 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인영 총장, 김선숙 신입 법제처장, 양명조 법대학장, 이양자 법대 동창회장, 이선희 이대법조인회 회장이 참석해 이화출신 법조인 200명 시대 개막을 자축했다.

합격자 명단

제4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자

<일반행정> 김유미(법학 4년 재학) 김소연(행정 4년 재학) 오은경(사회 03년 졸) 남우진(정의 4년 재학) 최정희(국문 00년 졸) 안은경(행정 02년 졸) 정혜원(심리 04년 졸) 조경옥(행정 99년 졸) 황효정(행정 99년 졸)
<재경> 신재형(경제 4년 재학) 박진희(행정 00년 졸) 피계림(행정 02년 졸) 이보경(법학 02년 졸) 김은정(영문 99년 졸) 오미순(사회 01년 졸)
<교육행정> 박혜원(영문 00년 졸) 이지은(수학교육 03년 졸) 박정신(교육 03년 졸) 차영아(과학교육 01년 졸)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

강소현(법학 04년 졸) 강자영(영문 95년 졸) 강은옥(법학 94년 졸) 고은별(법학 03년 졸) 기수현(법학 97년 졸) 김미진(법학 03년 졸) 김보현(법학 94년 졸) 김서원(법학 01년 졸) 김선민(법학 04년 졸) 김정민(법학 02년 졸) 김주현(법학 4년 재학) 김혜연(법학 4년 재학) 나하나(법학 02년 졸) 류수홍(법학 99년 졸) 박기연(법학 01년 졸) 박소애(법학 02년 졸) 박윤경(법학 99년 졸) 박은경(영문 00년 졸) 신은숙(행정 89년 졸) 안수정(법학 98년 졸) 오승민(법학 4년 재학) 오유경(법학 00년 졸) 윤선경(법학 97년 졸) 이기숙(법학 99년 졸) 이상숙(법학 00년 졸) 이소정(사회생활 00년 졸) 이수정(법학 03년 졸) 이유현(법학 02년 졸) 이정화(법학 02년 졸) 이주형(불문 97년 졸) 정다은(법학 4년 재학) 조미화(법학 4년 재학) 지영선(법학 01년 졸) 채지혜(법학 00년 졸) 한주실(법학 02년 졸)

제18회 군법무관 합격자

최정윤(법학 98년 졸)

제41회 변리사 합격자

강주영(컴퓨터 00년 졸) 김미정(화학 00년 졸) 김보민(약학 02년 졸) 배지현(생물 03년 졸) 이경숙(신방 96년 졸) 이명희(과학교육, 02년 졸) 이혜진(전산 97년 졸)

제39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곽소현(통계 99년 졸) 김경희(경영 4년 재학) 김도희(경영 02년 졸) 김미진(경영 04년 졸) 김성은(경영 02년 졸) 김수옥(경영 02년 졸) 김수진(경영 4년 재학) 김연미(경영 01년 졸) 김윤아(수학 04년 졸) 김지현(통계 02년 졸) 김진희(경제 4년 재학) 김혜미(경영 4년 재학) 김희연(경영 00년 졸) 남숙경(경영 4년 재학) 박성희(경영 98년 졸) 박영주(사회생활 96년 졸) 박지연(통계 02년 졸) 박지혜(통계 03년 졸) 박찬미(경영 3년 재학) 박현영(경영 03년 졸) 박희림(경제 04년 졸) 배세윤(경영 04년 졸) 서민아(경영 3년 재학) 서시연(소인발 98년 졸) 서유미(경영 02년 졸) 송승아(국문 04년 졸) 양윤정(경영 4년 재학) 오복희(경영 02년 졸) 유정은(소인발 3년 재학) 유현영(경영 04년 졸) 이보형(경영 98년 졸) 이영숙(통계 4년 재학) 이유나(영문 04년 졸) 이지숙(경제 04년 졸) 임미진(경제 03년 졸) 전지원(통계 02년 졸) 정미원(통계 02년 졸) 조연경(수학 00년 졸) 차전영(경제 04년 졸) 홍정혜(경영 4년 재학) 황지영(경제 4년 재학)

제38회 외무고등고시 합격자

<외교통상직렬> 박미조 (정의 98년졸)

제20회 입법고시 합격자

<재경> 나아정(사학 97년 졸)
<일반행정> 이유미(경영 00년 졸)

주요 언론사 2004년 공채 합격자

조선일보 : 송혜진(국문 03년 졸) 오해정(언홍영 4년 재학)
중앙일보 : 박수련(언홍영 04년 졸)
한국일보 : 이현정(언홍영 02년 졸)
연합뉴스 : 권수현(영문 03년 졸) 이주영(언홍영 4년 재학)
KBS : <TV PD> 함혜연(언홍영 04년 졸)
<기자> 이수정(생명과학 03년 졸) 한주연(언홍영 4년 재학)
<아나운서> 이선영(정의 04년 졸) 한효연(국문 04년 졸)
<방송경영> 김희경(법학 04년 졸)
MBC : <Radio PD> 박혜화(언홍영 03년 졸)
<편성 PD> 박선희(국문 4년 재학)
<기자> 박선하(약학 04년 졸)
<아나운서> 서현진(무용 03년 졸)
춘천MBC : <TV PD> 김선영(언홍영 04년 졸)
<기자> 허주희(생명과학 03년 졸)
청주MBC : <아나운서> 박선영(언홍영 4년 재학)
이수정(불문 02년 졸)
대전MBC : <기자> 김윤미(언홍영 04년 졸)

“이화의 이공계 교육 인프라, 적극 활용해야죠”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초대소장 맡은 전길자 교수

“이 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나라 여성 과기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간 10억원씩의 예산을 들여가며 여성 과기인들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대단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03호,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한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전길자 교수(화학)는 본교가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이화가 쌓아온 그간 이공계 여성교육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한국 사회를 위해 적극 활용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한다.

이번 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현재 11.4%에 머물러 있는 이공계에서의 여성인력 비율을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시점에는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그의 야심 찬 계획.

이 같은 목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물론 숏하게 많다.

“우선 사업 1차년도인 올해에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대졸여성, 과학교육에 관심있는 주부들을 생활속의 과학교사로 만드는 사업이죠. 단계적으로 전국 8곳에 교육센터를 세우고 이



지난해 영국에도 우리와 유사한 여성 과기인 인력센터 (United Kingdom Resources Center)가 생겼으며 이같은 곳과의 교류를 통해 지구촌 여성 과기인들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덕>

곳에서 배출된 과학교사들이 읍, 면, 동 단위로 퍼져 우리나라 풀뿌리 과학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 이공계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다 결혼, 육아 등으로 일을 놓은 여성들의 재교육 사업. 특히 기업체 등 현장의 니즈를 철저히 파악,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 과기인들에게 1:1 맞춤형 구인구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과학기술인등록센터를 만들어 여성 과기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커리어를 온라인상으로 등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도 곧 착수한다.

“여성 과기인들에게 특히 부족한 조직 관리 능력, 리더십 훈련부터 마련해 달라는 요구 또한 너무 뜨거워 놀라고 있다”는 전 교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dream factory”

- 공예샵 ‘이.결’ 탄생시킨 스승과 제자들

관광명소 인사동의 공예전문점 ‘쌈지길’ 안에 위치한 섬유 공예샵 ‘이.결(E-Gyul:이화여대의 ‘이’와 ‘짜임’과 ‘조직’을 뜻하는 우리말 ‘결’). 4.8평의 작은 가게에 10명의 디자이너들이 모였다.

그들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손재주와 감각입니다. 이것만은 자신 있습니다.”

이성순, 장연순 교수(섬유예술)와 디자인대학원 졸업생 김민자, 석진영, 유수정, 임현정, 윤선영, 진혜정, 최희영, 최지윤 씨(텍스타일 디자인)가 참여한 공예샵 ‘이.결’은 본교 디자인코리아연구원이 후원하고 있는 ‘이화’ 브랜드 사업의 첫 결실이다. 지난해 12월 18일에 문을 열어 수작업 패브릭을 이용한 스카프, 숄, 넥타이, 의상은 물론 러너와 같은 인테리어 용 제품, 신소재 섬유 원단까지 100여 점을 판매하고 있다.

“손님들이 수입 제품이나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독특한 디자인에 수공예 작품이라 외국인에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샵 매니저 최영혜 씨(디자인대학원 00년 졸)의



장연순 교수(왼쪽 네번째)와 이성순 교수(왼쪽 다섯번째)가 ‘이·결’ 매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공예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목격담은 자연스레 자랑으로 이어졌다.

‘이.결’의 탄생은 ‘쌈지길’을 오픈하는 모 업체 대표가 이성순 교수에게 입점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난 10월에 요청을 받고서는 두 달 동안 수시로 회의를 했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전의 작업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교수는 학생들의 감각과 손길로 만든 섬유공예품의 매력에 대량생산되는 수입 섬유명품을 압도한다며 ‘이.결’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을 지도해오면서 재능 많은 고학력 여성들이 졸업 후에 능력을 발휘할 곳을 못 찾는 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이곳의 디자이너들이 성장해서 각자의 브랜드 샵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0년간 공예작품만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대중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이 제겐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졸업 작품으로 만든 스카프가

반응이 좋아 매출도 늘었다는 디자이너 김민자 씨(디자인대학원 03년 졸)는 이곳이 특별한 공간이라고 전했다.

상상속의 디자인을 현실로 만드는 꿈의 공장, ‘이.결’. 이화에서 만난 스승과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처음이라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장연순 교수가 시원스레 답했다.

“직접 만들어 입고, 들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안목과 기술이 있으니 자신 있어요. 우리는 해낼 겁니다.” <민>

2005학년도 전형결과

다양한 수시전형으로 우수 신입생 선발

정시모집은 4.31:1의 경쟁률 기록

본교 2005학년도 신입학 전형이 1월19일 정시 모집 합격생 발표로 모두 마무리 됐다. 경쟁률은 수시1학기 모집에서 13.2:1, 수시2학기 모집에서 9.01:1을 기록했고, 정시 모집에서도 예년보다 높은 4.31: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수시2학기 모집에 신설된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은 교과외 영역을 적극 반영한 결과, 경쟁률 5.82:1로 수험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형은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모집단위의 특성별로 반영되었다.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수시모집의 취지에 따라 수시1, 2학기 전형이 실시됐고, 정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도 치러졌다.

수시1학기 모집에서 5.67: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총 74명(외국인 1인 포함)을 선발한 국제학부는 100%의 등록율을 보임으로써 글로벌시대의 국제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국제학부에서 처음으로 선발한 외국인 특별전형에는 이탈리아 여학생 만가노 노에미양이 국제학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화제를 모았다.

또한 리더십, 수학 및 과학, 외국어, 특별활동 등 특성화된 전형을 신설·확대하여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수시2학기 모집에서는 고교 추천 250명, 고교성적 300명, 고교 수학능력 우수자 727명, 조형예술

우수자 63명, 특기자 51명이 합격했다. 이공계열 육성정책 및 여성과학자 양성을 위한 미래과학자 특별전형에서는 50명을,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에서는 외국어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학생 70명을 뽑았다. 전형요소로서 비교과영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특별활동우수자 특별전형에서는 29명을 선발했다.

정시모집에서는 총 8,850명이 지원하여 일반전형 1,996명, 정원내 특별전형인 사회기여자 및 소년·소녀가장 20명과 정원의 특별전형인 농어촌 특별전형 70명,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7명으로 총 2,093명을 선발했다. 본 전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의 반영 영역을 각기 다르게 함으로써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른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주력했다. 이와 함께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범대를 포함한 인문계열 모집단위만 논술고사를 실시했으며, 자연과학대학 및 공과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및 과학탐구 영역만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했다.

이번 입시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학대학, 사범대학의 초등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등이 지원율과 입학성적 면에서 꾸준한 상승을 보였다. 이는 사회진출이 용이한 전문직 전공에 대한 여학생들의 지속적인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5학년도 새내기들의 입학식은 2월25일(금·오전10시), 대강당에서 마련된다.



“궁금하시죠? 이화로 가는 길”

지난해 12월2~5일, 전국 80개 대학이 참가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입학처 상담위원들이 본교 전시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상세한 입학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이화인’의 얼굴들로 꾸며진 본교 전시장은 7000여명의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 화제의 신입생

“난치병 극복하는 마법의 명약 만들 거예요”

약학대학에 합격한 이란 여학생 아사레 모자파리양

“하늘의 별이라도 딴 기분이에요. 이란에서도 약대는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2005학년도 신입생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 본교 약대에 최종 합격한 이란 여학생 아사레 모자파리(Asareh Mozaffari · 18세)씨. 2년 전 아버지 자한바크시 모자파리(Jahanbakhsh Mozaffari)씨가 주한 이란대사로 부임하면서 한국에 온 아사레 양은 약학을 공부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개발에 힘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히잡을 쓴 엷은 얼굴의 아사레 양은 지난 봄부터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공부



해오다 지난 11월19일(금)에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도 참여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란에서도 “한국산 전자제품, 자동차, 약세사리 등은 인기가 많고, 한국 대학들도 꽤 유명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대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생활의 첫발을 내딛게 된 그녀는 전문용어도 많고 공부도 쉽지 않은 약학 공부에 친절한 한국 친구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며 의학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을 내보였다. 〈민〉

2005학년도 수시2학기모집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2005학년도 수시2학기모집 합격자 1422명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입학처(처장 박동숙 교수) 주관으로 지난해 12월20일(대강당)에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합격자를 위한 특강과 축하공연 후 방학을 알차게 보낼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가 제공되어 예비 이화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합격생들은 입학 전까지 배정받은 담임 교수로부터 대학생활, 전공, 진로 등 학사지도도 받게 된다.

학생처
장학성금 전달식

지역학생들에게 전달된 이화의 이웃사랑



제4회 이화인 건기대회(지난해 10월27일)와 추수감사절 예배 성금에서 모인 장학기금 2000만원이 서대문구 지역의 청소년과 어린이 65명에게 전달됐다. 학생처(처장 송덕수 교수)는 지난해 12월20일 본관 회의실에서 장학성금 전달식(사진)을 갖고 부스르기사랑나눔회 강영순 목사, 이대부숙이화금란중학교 조경원 교장, 이대부숙이화금란고등학교 오선차랑 교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김미혜 관장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2001년에 처음 조성된 이 장학기금은 그해 17명이 수혜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총175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화리더십개발원

‘2030 우먼리더십캠프’ 심화워크숍 진행

이화리더십개발원(원장 조 형 교수)이 지난해 12월20~21일(국제교육관), ‘2030 우먼 리더십캠프’ 심화워크숍을 가졌다. 여성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이 캠프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리더십을 함양, 차세대 여성지도자로 양성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 16개 시·도에서 개최했던 지역 캠프 이수자 중 우수자 43명이 참여했다.

여성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집중 훈련하고, 정치, 공직, 기업, 언론, 여성단체의 여성지도자와 멘토링 결연을 통해 자신의 지도자상을 내재화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 이 캠프에서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의 대표단회의도 진행되었다. 장필화 교수(여성학), 조형 교수(사회학), 이명선 소장(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효은(다음차세대재단 대표), 신연숙(전 한겨레신문 이사),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한숙희(방송인/여성학자),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혜훈(한나라당 국회의원), 황인재(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씨가 멘토로 참여했다.

잇따른 수상 소식, 이화인의 저력 빛났다

국제법을 전공하는 정진옥(법과대학 대학원 5학기)씨가 지난해 11월26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5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 경연대회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7개 대학(원)의 국제통상법 전공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난해 12월2일 캐나다 문화어학원과 디지털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2004 성인 영작문 대회’에서 이수아(국제학부·3년 왼쪽 사진)씨가 ‘한국인의 정신(The True Spirit of Korea)’이란 주제로 1등을 차지했다. 이씨는 본교 학생동아리 ‘첫걸음’을 통해 알게 된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한누리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을 살려 “남과 북이 함께 할 때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이 발휘된다고 기술한 점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1월12일(금) 국내 최고 권위의 신인 패션디자이너 등용문 ‘제 22회 대한민국 패션대전’에 출전한 박상연(의류직물·3년 오른쪽 사진)씨가 ‘여성의 새로운 리듬’이란 주제로 은상을 받았다. 박씨는 “2학년 때부터 도전했는데 두 번째 만에 좋은 성과를 얻게 돼 무척 기쁘다”고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경력개발센터

‘나를 알면 성공합니다’ 방학 이용한 커리어 캠프 큰 인기



경력개발센터(원장 강혜련 교수)는 겨울방학동안 전학년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키우기 위한 집중 훈련프로그램 ‘이화 커리어 캠프(사진)’를 열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2학년 대상인 ‘캠프 I’에는 자기 탐구를 통해 진로를 설정하고, 재학 중 다양한 경력을 쌓아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2차(1차: 1월18~20일, 2차: 2월

15~17일)에 걸쳐 총 399명이 참가했다.

또한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 II’는 본인의 직무적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의 채용 절차를 경험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채용정보 습득, 취업서류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제공됐다. ‘캠프 II’도 2차(1차: 1월10~14일, 2차: 1월24~28일)에 걸쳐 총 20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이화 커리어 캠프’ 이수자는 센터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됐다.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신승훈 콘서트 개최



대외협력처(처장 신경림 교수)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공연으로 "신승훈 콘서트"를 개최했다. 본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승훈 콘서트"는 발전기금을 모

금을 위한 수익사업의 하나로 이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공연기획사인 (주)좋은콘서트의 기부금과 수익금 등 총 5000만원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대외협력처에서 운영하는 동창포털사이트 이화인닷컴 회원 및 교직원에게는 특별 할인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매년 연말 본교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발전기금 모금 콘서트는 이화동문과 교직원 가족들이 모교를 방문,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학교 발전에도 기여하는 크리스마스 절기의 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연간보고서 2호 발간



대외협력처(처장 신경림 교수)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연간보고서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연간보고서는 이화100주년 기념 도서관 건립에 크게 기여한 베티 마셜 여사, 해외에서 유산으로 이화여대에 발전기금을 남긴 파이프 부부와 도로시 스미스에 대한 기사와 매년 1만불의 장학금을 보내오고 있는 뉴욕동창지회의 소식, 1억원 장학금을 기탁한 정명숙 전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 등을 실고 있다. 또한 대외협력처가 생긴 1994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의 모든 기부자 명단이 실려있다.



이정혜 씨



배소현 씨

신규임용

지난해 11월1일자로 이정혜 씨가 회계과에, 배소현 씨가 구매과에 신규 임용되었다.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즐거움



'사랑의 김치, 이웃과 함께'

유난히 매서운 찬바람이 불던 지난해 12월14일, 본교 외국인 교환학생과 이화인 15명이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주최)에 참여,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들은 특별 제작된 12m의 대형 용기에 김치 속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등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손놀림으로 김장 담그기에 동참했다. 이날 담근 총 4만kg의 김치는 서울, 경기 지역의 결식 아동 및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이화인의 웃음, 아름다운 선율에 물들다'

지난해 11월29일 학생문화관 로비에서 열린 2004년 이화인의 웃음과 꿈, 일상을 담은 대형 크리스마스 조형물 '이화인의 웃음: Thanks 2004 Welcome 2005' 개막식. '이화인의 웃음'을 주제로 한 재학생들의 출품사진 140점과 이대학보사 기자의 취재사진 60여점이 전시된 조형물과 함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ESAOS의 크리스마스 미니콘서트가 성탄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국악과 캐물송의 화려한 어울림'

지난해 12월2일(오후3시)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가족성탄예배', 국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이화국악관현악단 100명과 200명의 음대 합창단(지휘 박신화 교수)이 국악으로 편곡된 성탄곡과 캐물송을 연주했다. 본교 총동창회 임원들이 20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그 흥겨움을 더했다.

첫 여성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김선옥 교수

“변화하는 사회 현상 반영하는 입법 추진”



김선옥 교수(법학)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장관급)이 됐다.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한다.

1월5일 취임식을 갖고 법제처장 업무를 시작한 김 교수는 “강의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법치 행정에 도움이 되는 입법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는 본교 법학과를 나와 독일 콘스탄츠대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내 법여성학의 권위자로 꼽혀왔다.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본부 책임연구원, 한국공법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할 당시, 정부가 여성정책담당관 제도를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번에 함께 입각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과는 본교 재학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1년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동 정



최원묵 교수(법학)

지난해 10월14일, 국제통상법 분야의 세계권위지인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발간)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명 교수(보건교육)

지난해 11월1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건강증진·보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년 임기의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문인옥 교수(보건교육)

지난해 11월1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년 임기의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규도 교수(성악)

지난해 12월1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에서 대상(음악)을 수상했다.



류철균 교수(디지털미디어)

1930년대 상하이를 무대로 2004년 한국의 불혹세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비장미 넘치는 누아르식 미장센으로 구사한 추리소설 '하비로'를 발표했다.

김화영 교수(식품영양)

지난해 11월11일 서울대 의대 강당에서 열린 한국노화학회 총회에 서 2005년도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광옥 교수(식품영양)

미국에서 출간되는 관능검사 분야의 저명 학술지(SCI급) 'Journal of Sensory'의 편집위원으로 선임, 올해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이계우 교수(국제학)

지난해 12월31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한국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교섭에 민간 전문가로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신은경 교수(무용)

지난해 말, 창작발레 '메시아 예수'의 안무를 맡아 국민일보와 기독교문화예술원이 공동주최하는 제18회 기독교문화대상의 대상(무용부문)을 수상했다.

이공계 교수들 활약 돋보여

양종만, 홍순태, 박현석, 김동수 교수

양종만 교수(물리) 지난해 11월19일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회원이 됐다.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가입 요건이 엄격해 국내 외적으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과학기술인에게만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70세 미만 500명 이하의 회원이 등록돼 있다.

홍순태 교수(과학교육)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 과학 및 공학분야(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2005~2005년 판(8판)에 등재됐다. 입자물리학을 전공, 지금까지 유명 국제학술지에 40여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해 온 홍교수는 'SU(3) 그룹 구조를 가지는 카이랄 모형의 정적 성질' (Static properties of chiral models with SU(3) group structure, 2002년 발표)이라는 논문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박현석 교수(컴퓨터) 국내 학자들과 공동집필한 논문 '에탄올 생산 균주 자이모모나스의 게놈 정보에 관한 연구'가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2005년도 신년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에탄올 발효 산업미생물인 자이모모나스의 게놈 DNA의 전체 염기서열을 모두 해독, 이를 DNA칩으로 만들어 알코올 생산 핵심 유전자를 찾아냄으로써 자이모모나스 세균이 다른 세균에 비해 알코올 생산능력이 월등한 이유를 유전자 수준에서 밝혀내는데 성공했다.

김동수 교수(환경) SCI 학술지인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의 편집위원을 맡게 됐다. 발간 역사가 40년이 넘는 환경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로서 한국인이 편집위원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종만 교수



홍순태 교수



박현석 교수



김동수 교수



와인즈버그, 오하이오

셔우드 앤더슨 지음, 서숙 옮김

미국의 탁월한 자연주의 작가로 불리는 셔우드 앤더슨의 대표작이다. 22개의 짧은 이야기를 움니버스 형식으로 묶은 이 소설은 20세기 초 미 중서부 작은 마을 와인즈버그를 배경으로 타인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소외당한 채 괴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앤더슨이 일관되게 추구해온 인간 내면의 진실과 소외의 문제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으며 헤밍웨이와 포크너 등에게 큰 영향을 끼친 앤더슨의 솔직담백한 문체를 맛볼 수 있는 감동적이고도 매력적인 작품이다. <9천원>

역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조선 사람들

최완기 지음

'2003 출판부 저술지원 과제'로 선정되어 집필된 학술서로, 조선 후기 시대의 갈등 구조를 다각도로 밝혀 봄으로써 참된 역사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전환기의 한 부분으로 주시되고 있는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저자는 당시 사람들이 역사적 과제에 어떻게 갈등하고 고뇌하였는가를 해아려 보면서,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2만8천원>

민주주의와 규제

G. 팰러스트 외 지음, 조택 옮김

전력, 전화, 가스 등과 같은 공익사업의 규제에 있어서 최고의 실무적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에 의해 씌어진 책으로 미국의 공공 서비스 규제 방식에 대한 최초의 단계별 안내서이다. 저자들은 전통적인 미국 체제의 정당성, 미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규제가 실패한 이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노사 관계 등 각 집단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책은 건강한 노사 관계 방향을 논의하는 데 바탕을 마련해주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1만3천원>

번역과 창작 | 한국 근대 여성 작가들 중심으로

테레사 현 지음, 김혜동 옮김

이 책은 1900년대 초부터 1930년대 말까지 한국어로 번역된 외국 문학 작품과 이 시기에 여성에 의해서 씌어졌거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새로운 형태의 작품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서이다. 번역과 새로운 형태의 작품, 그리고 새로운 여성 이미지 사이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책은 번역가들이 여성에 관련된 작품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와, 1920-30년대 여성 번역가들의 활동과 작품을 살펴보고 이어서 당시 한국 여성 작가들의 창작 작품과 번역 작품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만원>

황규광 박사의 피부 뜯어고치기

황규광 · 최은선 지음

이 책은 '피부성형'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집필된 피부·미용 교양서이다. 국내 최고의 피부성형 전문가인 이화여대 의과대학 피부과 황규광 박사가 다양한 박피술, 레이저 시술 등 피부성형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자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피부관리법과 소홀하기 쉬운 모발 의학과 관리까지 피부 관련 핵심사항들을 정확하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1만4천원>

Gender, Culture & Society

Carolyn Sobritchea 역음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 센터가 기획하는 아시아 여성학 교재 시리즈의 제1권 Power, Knowledge and Justice(태국편)에 이은 두 번째 필리핀편이다. 한국을 비롯한 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대만의 8개국이 참여한 이 시리즈는 각 사회의 가족, 노동, 법, 성역할, 여성운동 등 여성학의 오래된 화두로부터 문화, 몸, 섹슈얼리티까지 여성주의의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나라별로 다양한 여성 경험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아시아 여성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미래를 향한 여성들의 만남의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만1천원>

그대 안의 풍경

이대동창문인회 역음

현재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동창문인회의 새로운 수필집. 원로수필가 전숙희 씨, 전(前)정무장관 조경희 씨, 전(前)이화여대 교수 나영균 씨를 비롯한 총 86명의 글이 실려 있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읽을거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 다양한 학과 출신 문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전해 줌으로써 다채로운 삶의 유형들을 경험하고 그들의 연륜에서 배어나오는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향기로운 책이다. <1만원>



총동창회

ECC기금으로 50억원 약정

윤순희 총동창회장 개인후원금 2억원 전달



윤순희 총동창회장

윤순희 총동창회장이 지난해 11월29일(오후6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이화인의 밤' 행사(사진)에서 모교 이화캠퍼스엔터 건립을 위한 14개 단과

대학과 55개 각 학과 동창회의 뜻을 모아 50억원의 후원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윤 동창회장은 또 '이화인의 밤' 수익금 1억원과 함께 개인 후원금 2억원을 전달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50억원을 거둬야 하는 총동창회장으로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솔선수범의 의미로,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심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에 작은 정성을 표시한 것 뿐"이라는 윤 동창회장은 이날 모인 동문들에게 "모교 ECC 건립을 위해서는 한분 한분의 정성이 필요하니 동



문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총동창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약정서를 받아든 신인령 총장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곤경앞에서 더 강한 응집력으로 뭉치는 것이 이화의 저력이며 119년 동안 이화는 모험정신을 가지고 새 시대 흐름에 대응해온 선구자적 존재였다"며 "평화와 공존의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것이 이화의 21세기 소명이므로 만남을 무릅쓰고 이 일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1400여명의 동문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행사는 ECC 건립 홍보 비디오 상

영을 비롯하여 1부 만남, 2부 만찬에 이어 3부에는 '남자라서 이화인이 되지 못한 한을 품고 있다'는 성악가 김동규씨의 열창, SBS 김정택 관현악단 단장의 정열적인 피아노 연주 등 흥겨운 축제 마당으로 펼쳐졌다.



동문 동정

장하진 동문(사회 73년 졸)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한국여성개발원장 등을 역임한 장

하진 동문이 1월5일 신임여성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보육을 여성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보육정책의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그는 이와 함께 여성의 일자리 창출, 가족정책의 새 틀 짜기, 성매매특별법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향림 동문(생물 84년 졸)



지난해 3월 볼보자동차코리아 사장이 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의 여성 CEO'로 큰 화제를 모았던 이향림 동문이 1년도 안된 1월10일, PGA 사장으로 임명돼 또 한차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PAG(Premier Automotive Group)는 볼보와 재규어, 랜드로버 등 유럽 최고급 자동차 판매사업을 총괄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이 동문은 이 그룹의 전 세계 해외법인 중 최초의 여성 CEO가 된 것.

이경순 동문(신문방송 67년 졸)



1월11일, 영상물 등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일보 기자 출신으로 YWCA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이 동문은 김수용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인 올 6월6일까지 위원장직을 맡는다.

한성옥 동문(서양화 81년 졸)



지난 1월, 제46회 미국일러스트레이터협회상 도서부문을 수상했다. 한 동문은 지난해 미국 마셜 카벤디시 출판사에서 발행한 그림책 '바쇼와 강 돌' (Basho and the River Stones)의 삽화로 매년 미국에서 나온 모든 부문의 일러스트레이션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이 상을 받게 됐다.

박은주 동문(수학 79년 졸)



출판사 김영사 대표로 한국출판계를 이끌고 있는 박 동문이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홍지웅)가 선정하는 2004 올해의 출판인 본상 수상자로 뽑혔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인의 밤' 행사와 함께 열렸다.

서혜석 동문(영문 76년 졸)



국제변호사로 일해온 서 동문이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직을 승계, 17대 국회의원이 됐다.

세계적인 로펌 '베이커 앤 맥킨지'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로 활동해온 서 동문의 국회 입성으로 본교 출신 국회의원은 12명으로 늘어났다.

홍승미 동문(교육 95년 졸)



지난해 12월30일의 병무청 인사에서 선병국 병역정책과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병무청 사상 첫 여성과장이 되었다.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병무청 징모국에서 공직을 시작했던 홍 동문은 지난해 9월 병무청 개청(1970년) 이래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홍성우 동문(행정 01년 졸)



지난해 8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KOTRA 뉴욕무역관에 파견됐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에서 근무하던 홍 동문은 뛰어난 언어 및 업무실력으로 뉴욕 무역관장의 큰 신임을 받고 있다고.

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 소식

대학교회 교인 일동 2억원 약정



대학교회 최지배 재정부장이 신인령 총장에게 ECC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정용석 담임목사) 교인 일동은 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으로 2억원을

약정하고 이 중 5000만원을 지난해 12월24일 성탄전야예배 시간에 신인령 총장에게 전달했다. 예배에 참석한 신인령 총장은 인사말에서 "오랫동안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었으며,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온 대학교회에서 이렇게 ECC 건립을 후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학교회는 현재 제3세계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매학기 지원하고 있다.

노교수의 끝없는 이화사랑

이순일 전 본교 교수(유아교육과 72년 퇴직)는 지난해 12월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화캠퍼스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바로 대외협력처로 1000만원 약정서를 보내왔다. 올해로 91세인 이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모교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고 하며,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이화대학을 계속 후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운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사범대학 교육관 신축 기금으로 1000만원을 약정한 후 매달 20만원씩 분납 중이기도 하다.

이화ALPS 총동창회

ECC기금 10억원 약정 및 탁아소기금, 장학기금 전달



지난해 12월16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여성최고지도자과정 20기 총동창회 임회식 및 창립 10주년 송년모임'에서 정보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과정(ALPS) 백혜자 총동창회장은 신인령 총장에게 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 8000만원과 '이대재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 바자회'에서 마련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ALPS총동창회는 매년 바자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장학기금으로 보내오고 있다. 한편 백혜자 회장은 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 5000만원 약정서를 전달하였는데, 백 회장은 전에 5000만원을 ECC기금으로 전달한 바 있어 총 1억원을 약정하였다. 이 날 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으로 박찬옥 동문(ALPS 7기)이 1억원을 약정하였고, 김병순 동문(ALPS 13기)이 2000만원을 약정하였다.

감사의 뜻을 담은 ECC기금



이화캠퍼스센터(ECC)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한 박찬옥 동문(ALPS 7기)은 지난 2003년에도 이화사랑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박 동문의 이번 약정에는 남다른 뜻이 있

다. 1956년 2월 본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해 4월에 결혼한 박 동문은 내년(2006년)이 대학졸업 및 결혼 50주년이 되는 것. 그 동안 지내온 세월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ECC기금을 약정한 박 동문은 '이 모든 것이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라고 짧은 소감을 덧붙였다.

탁아소 기금 기탁자 명단

김명희 703만8000원, 이종순 491만2000원, 김현녀 350만8000원, 양지혜 350만8000원, 이경애 350만8000원, 이영자 350만8000원, 이현주 350만8000원,

주미선 350만8000원, 강옥자 210만5000원, 박복여 210만5000원, 양정자 210만5000원, 차정심 210만5000원, 강희영 140만3000원, 구은주 140만3000원, 김경수 140만3000원, 문채홍 140만3000원, 박영경 140만3000원, 박점덕 140만3000원, 배경선 140만3000원, 손향미 140만3000원, 신미숙 140만3000원, 양승주 140만3000원, 우경옥 140만3000원, 우화실 140만3000원, 윤선호 140만3000원, 윤혜라 140만3000원, 이계숙 140만3000원, 이근복 140만3000원, 이근혜 140만3000원, 이소영 140만3000원, 이연순 140만3000원, 이명옥 140만3000원, 이은심 140만3000원, 이재숙 140만3000원, 이혜숙 140만3000원, 장예진 140만3000원, 전윤자 140만3000원, 황미자 140만3000원, 황인옥 140만3000원, 양봉실 70만1000원 (이상 ALPS20기 40명)

장학기금 기탁자 명단

김미령(ALPS 19기) 500만원, 김영화(ALPS 18기) 500만원, 마희재(ALPS 3기) 500만원, (주)유티모유통 500만원, 정옥희(ALPS 12기) 500만원, 최영은(ALPS 8기) 500만원, 김초원(ALPS 7기) 100만원 등

E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 약정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학과동창회, 기수별 동창모임의 단체 약정 및 교직원, 동문들의 약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혜영(교육대학원) 500만원, 박명희(국문 75년졸) 1000만원, 진주원(정치외교학 91년졸) 50만원, 이경림(심리 87년졸) 100만원, 박정재(신문방송 04년졸) 1000만원, 조명혜(생물 65년졸) 5000만원, 김성옥(생물 72년졸) 300만원, 고경순(생물 72년졸) 100만원, 이재림(건반악기) 500만원, 전성민(건반악기) 500만원, 추희명(성악 94년졸) 1000만원, 고선미(성악 84년졸) 500만원, 고혜영(성악 95년졸) 500만원, 권혜영(성악 79년졸) 500만원, 이순화(성악 91년졸) 500만원, 이승희(성악 77년졸) 500만원, 이효진(성악 90년졸) 500만원, 전주원(성악 95년졸) 500만원, 진귀옥(성악 79년졸) 500만원, 박미경(성악 87년졸) 300만원, 박미자(성악 86년졸) 300만원, 오승주(성악 96년졸) 300만원, 유미숙(성악 84년졸) 300만원, 윤정진(성악 83년졸) 300만원, 이수연(성악 92년졸) 300만원, 정성경(성악 92년졸) 300만원, 정은서(성악 88년졸) 300만원, 서희정(성악 94년졸) 200만원, 신애경(성악 86년졸) 200만원, 이경희(성악 94년졸) 200만원, 이미선(성악 90년졸) 200만원, 이영혜(성악 90년졸) 200만원, 강경원(성악 85년졸) 100만원, 신은혜(성악 79년졸) 100만원, 이연희(성악 74년졸) 100만원, 임경희(성악 79년졸) 100만원, 김지연(일반대학원 성악 96년졸) 100만원, 박영미(일반대학원 성악 94년졸) 100만원, 황윤정(중고음악 95년졸) 1000만원, 최주영(중고음악 96년졸) 300만원, 최수향(중고음악 92년졸) 300만원, 권인옥(한국음악 95년졸) 300만원, 류정연(한국음악 95년졸) 300만원, 임미영(한국음악 73년졸) 300만원, 정순희(한국음악 86년졸) 300만원, 채수정(한국음악 94년졸) 300만원, 한나라(한국음악 92년졸) 300만원, 홍주희(한국음악 90년졸) 300만원, 이선희(한국음악 00년졸) 100만원, 이경희(서양화 80년졸) 100만원, 김연정(무용 69년졸) 100만원, 이경원(외국어교육 83년졸) 100만원, 이양재(법학 67년졸) 500만원, 전성연(법학 70년졸) 500만원, 전효숙(법

학 73년졸) 500만원, 김연숙(법학 71년졸) 300만원, 이선희(법학 73년졸) 300만원, 김숙혜(법학 65년졸) 200만원, 법학과 12기(1965년졸) 100만원, 유향수(법학 70년졸) 200만원, 신영미(법학 85년졸) 100만원, 유희숙(법학 65년졸) 100만원, 장은수(법학 71년졸) 100만원, 차명희(법학 66년졸) 100만원, 홍기연(경영 85년졸) 200만원, 이진화(의학 95년졸) 300만원, 의과대학18회동기 300만원, 김경희(의학 86년졸) 100만원, 김보경(의학 92년졸) 100만원, 김순옥(의학 81년졸) 100만원, 김혜영(의학 86년졸) 100만원, 박경숙(의학 86년졸) 100만원, 백애란(의학 81년졸) 100만원, 오혜숙(의학 78년졸) 100만원, 장혜정(의학 83년졸) 100만원, 이소라(의학 91년졸) 50만원, 이종민(의학학 80년졸) 50만원, 황혜영(의학 87년졸) 30만원, 강영수(의학 87년졸) 20만원, 김영환(의학 87년졸) 20만원, 이희정(의학 87년졸) 20만원, 임영채(의학 78년졸) 20만원, 권정미(의학 99년졸) 10만원, 유정애(의학 81년졸) 10만원, 전희숙(의학 87년졸) 10만원, 김은재(의학 62년졸) 300만원, 장현숙(의학 60년졸) 300만원, 이상기(의학 60년졸) 100만원, 최집자(가정관리 65년졸) 300만원, 최지향(가정관리 49년졸) 500만원, 김향숙(의류직물 93년졸) 108만원, 권진희(식품영양 60년졸) 100만원, 이경희(대구경북여고제29회졸업생모임, 대표 오화자) 100만원, 이명 500만원

김영심(학생처 학생복지센터) 500만원, 남덕우(성악전공 교수) 500만원, 신지희(성악전공 교수) 500만원, 윤명자(성악전공 교수) 500만원, 이규도(성악전공 교수) 500만원, 김혜경(학생처 학생복지센터) 300만원, 양영진(재무처 구매과) 300만원, 장혜원(건반악기 전공 교수) 300만원, 유경희(중앙도서관 정기간행물실) 200만원, 김영순(학생처 학생복지센터) 100만원, 이경옥(학생처 학생복지센터) 100만원, 이계옥(교목실) 100만원, 장미숙(총무처 총무과) 100만원, 정락춘(중앙도서관 정보처리과) 100만원, 한숙현(학생처 학생복지센터) 100만원, 심세성(교무처 교무과) 50만원, 유선자(사범대학 행정실) 50만원

(주)동호에이텍(대표이사 최웅학) 2000만원, 김성규(엠씨엠코리아 대표) 1000만원, 동서기연(주)(대표 박영숙) 1000만원, 우인(대표이사 최필선) 1000만원, 권영미(학부형) 500만원, 박종화(대학교회 교인) 300만원, (주)아르메(대표 이주환) 100만원

장학금 기탁 소식

장상 교수

5000만원 이화사랑장학금 완납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장상 교수(기독교학전 공)는 2001년 10월에 약정한 장학금 5000만원을 수시로 납입해오다 2004년 12월에 약정금액을 완납했다. '장상 장학금'은 앞으로 기독교학 전공과 수학전공 학부생 출신으로 같은 전공의 석사과정 에 진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 밖의 장학금 기탁자

총동창회 5000만원, (주)코콤포토노벨리(대표 박재훈)

500만원, 이인정(주식회사 태인 대표이사) 300만원, 이종미(식품영양학전공 교수) 300만원, LA외과대학동창회 \$1,600, 강찬수(서울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100만원, 박광서(Tower Perrin 대표이사 한국사장) 30만원, 윤재승(주)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 30만원, 윤병철(한국 FB협회 회장) 30만원, 최영상(주)메타넷 대표이사 사장) 30만원

조흥은행 정보화발전기금 전달



지난해 12월16일 조흥은행(은행장 최동수)은 총장실에서 본교의 정보화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전달했다.

발전기금 기탁 현황

이화국제재단에서 보내온 기금 소식

이화국제재단은 본관의 유지·보수기금인 파이퍼기금, 중앙도서관 도서구입기금인 도로시 스미스 유산기금을 비롯하여 장학금, 간호과학관 건축기금을 아래와 같이 보내왔다.

Pfeiffer Fund \$30,000, Dorothy Smith Estate for the Centural Library \$16,177.56

● 이화사랑장학기금

뉴욕동창회(New York Alumnae Scholarship) \$4,000, May Day Fund \$5,790

●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윤광주 \$1,000 (간호 69년졸), 정지은 \$400, 양정남 \$120 (간호 60년졸), 이명숙(간호 71년졸) \$120

남우(南雨)장학금 기탁



지난 해 12월 9일 익명의 한 사업가가 총장실을 방문, 장학금 2억원을 약정(사진)했다. 그간 사업차 해외를 다니면서 여성교육 및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 기탁자는 이화의 교육 이념인 '진,선,미'가 특히 마음에 든다며 이 장학금이 눈앞의 취업에 급급하기 보다는 패기있게 자신의 큰 꿈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학금은 기탁자의 사별한 부인의 이름을 따 '남우(南雨)장학금'으로 명명되었으며, 대학원 나노과학부 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유한선 동문,

이화사랑장학기금 1억원 기탁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화사랑, 이제야 표현합니다." 지난해 12월2일 유한선 동문(정치외교 04년졸)이 이화사랑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해 왔다. 2004학년도 후기 졸업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던 유한선 동문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화사랑을 실천에 옮긴 것.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할 때는 큰 포부가 있었으나 남편(구두회LG그룹 창업고문)을 따라 유학을 가는 바람에 이화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 나가서 지내는 동안 이화대학의 소중함과 자랑스러움을 피부깊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장학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힌 유 동문은 앞으로도 이화대학 후배들을 위해 계속 장학금을 기탁할 뜻을 내비쳤다.

'유한선 장학금'은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정치외교전공 학부생 1명에게 등록금 전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범대학 교육관 신축기금

양수화(종교음악 71년졸)

1000만원, 김영숙(교육대학

원 교수) 600만원, 김영심(사

회생활 77년졸, 학생처 학생

복지센터) 500만원, 장선희

(음악교육 82년졸) 500만원,

정현주(교육대학원 교수)

500만원, 차재순(외국어교육과 퇴임교수) 500만원, 교육

공학과 동창회 420만원, 교육공학과 5기 300만원, 교육공

학과 3기 300만원, 김준희(교육공학 67년졸) 300만원, 이

인숙(미술교육 85년졸) 300만원, 김점선(교육공학 68년졸)

200만원, 김경자(교육대학원 교수) 100만원, 김명숙(교육

대학원 교수) 100만원, 김명원(초등교육 70년졸) 100만원,

김성은(음악교육 04년졸) 100만원, 김소연(음악교육) 100

만원, 김정순(사회생활 74년졸) 100만원, 김현정(음악교육)

100만원, 김형미(교육공학 82년졸) 100만원, 노현숙(사회

생활 71년졸)100만원, 문채영(사회생활 74년졸) 100만원,

박명숙(피아노 75년졸) 100만원, 박혜순(사회생활 74년졸)

100만원, 박혜영(음악교육) 100만원, 사회생활학과 12기

100만원, 송은경(음악교육 02년졸) 100만원, 양정희(초등

교육 71년졸) 100만원, 이정란(사회생활 74년졸) 100만원,

이정순(사회생활 74년졸) 100만원, 이향숙(사회생활 74년

졸) 100만원, 이혜경(특수교육 82년졸) 100만원, 이혜은(사

회생활 73년졸) 100만원, 임영숙(교육 57년졸) 100만원,

임혜순(사회생활 74년졸) 100만원, 장영복(사회생활 74년

졸) 100만원, 최송이(사회생활 74년졸) 100만원, 김옥현(교

육공학 70년졸) 80만원, 강창은(사회생활 74년졸) 50만원,

박은영(교육공학 84년졸) 50만원, 박은영(교육공학 84년

졸) 50만원, 박정선(초등교육 71년졸) 50만원, 안영미(초등

교육 71년졸) 50만원, 오숙방(사회생활 74년졸) 50만원, 유

인화(교육공학 82년졸) 50만원, 이미영(교육공학 84년졸)

50만원, 이연희(사회생활 75년졸) 50만원, 두만영(교육공

학 98년졸) 30만원, 오윤진(일반대학원 교육공학 99년졸)

10만원, 최하진(교육공학 96년졸) 10만원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김수(간호 91년졸) 400만원, 조보영(간호 89년졸) 200만원, 김정희(간호 94년졸) 100만원, 옥지원(간호과학과 석사과정) 100만원

그 밖의 발전기금

(주)좋은콘서트 4000만원, 패션디자인연구소 3500만원, 박인재(간호 65년졸) 3000만원, 서지희(경영 85년졸) 500만원, 이자형(간호과학과 교수) 50만원, 이도영 \$300

장학금 기탁자 인터뷰

유희정 동문,

심리학전공생을 위한 장학금 1억원 기탁



유희정 동문(교육심리 84년졸)은 지난해 12월28일 총장실을 방문하여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

다. 유 동문은 오래전부터 장학금을 기부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어 미루고 있던 중 최근 큰딸 김소연씨가 맨하탄음악학교(Manhattan School of Music)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아 이를 기념, 친정 어머니와 본인의 모교인 이화여대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희정(교육심리)장학금'은 사회과학대학 심리학전공 학부생에게 매학기 1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심영자 동문,

이화사랑장학기금 5천만원 약정

지난해 10월8일 심영자 동문(이영회 65기)이 정치외교학과 고시준비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5000만원을 약정, 올 1월부터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심 동문은 대외협력처로부터 장학금 기부에 대한 홍보를 접하면서 장학금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영회(경영대학원 이화여성고위경영자과정)에서 진행되는 월례강좌의 한 강연을 듣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 바로 그날 장학금 약정을 하게 되었다고, 어떤 형태든 부의 사회환원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심 동문은 보람있는 일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목동병원, 최첨단 별관 개관

지상 10층 · 지하2층 · 치과진료부 · 건강증진센터 · 장례식장 들어서

목동병원(원장 박영요)이 지난해 12월9일 연면적 4336평,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의 별관 개관식(사진)을 가졌다. 새로 들어선 별관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장례식장, 치과진료부, 건강증진센터, 행정부가 이전했고, 올 5월 중에 교수연구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지상 1층, 지하 2층, 연건평 1500평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외관을 자랑하는 장례식장은 27평부터 78평까지 13실의 빈소에 각 빈소마다 상주후계실, 사위실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시설까지 완벽해 최상의 시설을 완비했다.

운영면에서도 장례 담당 직원이 운구에서 발인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해주는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관 지상 2층에는 240평 규모에 임상 6개 전문과목과 26개 유닛을 설치한 대규모의 치과진료부가 들어섰다. 최신설비의 임플란트 수술실과 특수클리닉은 물론 소아 및 특수 장애아동의 수면치과 진료실을 갖췄다. 또한 디지털 X-선 및 덴탈

Pacs를 도입했고 레이저 치료실도 가동할 예정이다.

지상 3층에는 300평 규모의 건강증진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Fusion PET, 16슬라이스 CT, 전신 MRI, MRA, 대장내시경, 각종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전문도우

미를 통해 체계적인 검진 안내와 1일 80여명의 검진으로 진료대기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 신인령 총장,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운섭 의대 학장, 연구원 동대문병원장 등 100여명의 내외귀빈과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목동병원

연변대학병원과 협력조인식 가져

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7일 중국 연변대학병원(원장 김 해)과 협력조인식을 갖고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우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연변대학병원은 1946년 개원한 중국 내 최고등급병원으로 12만평의 대지 위에 29과목 755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서 박영요 목동병원 원장은 "중국 연변대학병원과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교류의 첫 물꼬를 댔다"며 "앞으로 학술, 의료, 행정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한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해외진료봉사 마치고 귀국



목동병원 성형외과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5일까지 베트남 나짱시에 있는 칸화성 도립병원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해외 진료 봉사에는 목동병원 김한중 교수와

김양우 교수 외에 이성희(이화여자대학교 성형외과 교실 출신들의 모임) 회원들이 참석, 베트남 오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다. 이성희는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 해마다 해외 진료 봉사를 해오고 있다.

이화의료원, 2004년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웹사이트 콘텐츠 부분 대상 수상

이화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건일)이 지난해 12월8일(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열린 '2004년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웹사이트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화의료원 웹사이트(www.eumc.co.kr)는 건강정보 등의 중요한 콘텐츠를 고객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배열함

으로써 고객중심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해 고객이 이화의료원 웹사이트 상에서 방문 예약, 문서 발급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고객참여형 서비스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대문병원

진단방사선과 확장·이전 기념식 가져

동대문병원(원장 연구월)이 지난해 11월12일 진단방사선과 확장·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새롭게 확장·이전한 진단방사선과는 영상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인 Full-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를 갖추어, 신속 정확하고 편리한 검진뿐만 아니라 외무병원과도 전산화된 영상을 쉽게 공유해 환자의 이동 없이 병원 간 협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첨단 디지털장비를 갖추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환우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동대문병원에서는 지난해 11월17일 '2004년 가을 정신건강과 환우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병마로 지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나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현악 4중주 팀이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전해준 것. 특히, 아름다운 선율로 유명한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와 흥겨운 리듬의 '항가리 춤곡' 등 귀에 친숙한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청중들을 위해 음료수가 제공되는 등 작지만 알찬 연주회였다.

동정

하중식 교수 '후즈 후'에 3년 연속 등재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5년도 제22판에 등재된다. 2003년부터 연속 3년째 동일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하중식 교수는 세포막 생리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적과 30여년간 의학 전문인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후 교수 국제 정형외과 세미나에서 강연



동대문병원 한국인공관절센터 김영후 교수는 1월 12~14일까지 호주에서 열린 Orthopaedic Update - MIS Surgery Series(정형외과 최소 침습술에 의한 고관절 및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분야에 대해 강연했다.